

투데이

애물단지 제2순환도로 갈등 2라운드

행정심판 패한 민간사업자 이번엔 법정 소송 광주시 “고의적 시간끌기뻔 재정보전금 중단”

‘헐레떡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둘러싼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행정심판에서 광주시에 패한 민간사업자가 이번엔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 23일 광주시를 상대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감독명령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광주시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행정심판위원회가 ‘광주시가 민간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감독권 차원에서 정당한 조치’라며 기각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 출자자인 주주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재무상태는 악화시켰다’며 ‘공공도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지난해 12월12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감독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애초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측이 자본구조 원상회복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순환도 실시협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한 뒤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특히 민간사업자 측이 따라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재정지원보전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건설사업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했으며 개통 3년 뒤 백퀴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으로 지난 11년간 1190억원의 예산을 보전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좁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광주시는 특히 민간사업자 측이 따라 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재정지원보전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건설사업이 1997~2000년 1816억원을 들여 완공했으며 개통 3년 뒤 백퀴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다. 이후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보장으로 지난 11년간 1190억원의 예산을 보전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좁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동아시아육상대회 북한응원단으로 남한을 방문했던 리설주 추정인물이 지난 2005년 9월 5일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며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부인 리설주
2005년 남한 방문”

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으로 공개한 리설주가 지난 2005년 남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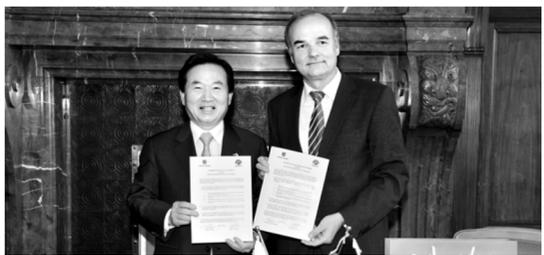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리설주가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육상대회에 응원단으로 참석한 것이 공식 확인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인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1989년 생인 리설주는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광양시 금성2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에서 음악을 전공했으며, 2009년 성 1위원장과 결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북한이 리설주의 존재를 공개한데 대해 안정적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광주시-獨 라이프치히시 우호교류 협정



강운태 광주시장이 24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시청에서 양 도시간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다.

광주시와 독일 라이프치히시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강운태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24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시청사를 방문, 버크하르트 시장을 면담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다. 라이프치히시는 지난해 3월 경제부시장 등이 광주를 방문,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바 있다.

라이프치히시는 지난 89년 ‘월요데모’를 통해 반체제 운동을 시작, 옛 동독시절 민주화 운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등 민주화운동에서 광주의 유사한 길을 걸어왔다.

강 시장은 이날 “라이프치히시는 광주처럼 민주화운동을 거리기 위해 매년 10월 빛의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 도시가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승화하는 예술단체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 라이프치히시가 매년 5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해줄 것도 요청했다.

/총행기자 redplane@

교통카드로 광주도시공사 체육시설 사용료 지불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대중교통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게 됐다.

광주도시공사(사장 홍기남)는 26일 광주시 대중교통카드 운영업체인 한케이시스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다음달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인 ‘한케이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총행기자 redplane@

해파리 습격 당한 신안·영광

“올 첫새우 조업 망했다”

“피해액 100억 넘을 것”

신안과 영광지역 첫새우 새우잡이 어민들이 해파리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상품 첫새우가 잡히는 시기에 맞춰 나타난 대규모 해파리떼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첫새우 금어기가 다음달부터 시작돼 사실상 올 어업은 끝났다. 일각에서는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해파리 떼의 습격을 받은 신안, 영광해역에서 첫새우 잡이에 나선 어선은 100여척이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이 해역을 통틀어 ‘노무라입깃 해파리’ 때문이다. 또 해파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도 속

출하고 있다.

이미 130여 척은 조업을 포기하고 항구에 정박중이거나 민어 등 다른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안수협 북부지소 올 첫새우 위관액은 160억3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3억원보다 72억원 이상 감소했다.

이곳에 해파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중순이었다. 해역 수온이 섭씨 18℃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서해 먼바다에서 10~30cm 크기의 보름달물 해파리가 서해 앞바다 인근으로 몰려들더니 이달 초 갑작스레 노무라입깃 해파리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어획량에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羨 시장 ‘광주은행 분리매각’ 촉구 서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27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서한문을 보내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해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일정에 따른 입찰의향서 접수 마감 앞두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지역환원을 촉구합니다!’란

서한문을 보냈다.

강 시장은 서한문에서 “정부가 입찰을 통해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광주은행이 지역 향토은행으로 환원되기를 열망하며 분리매각을 요구해 온 광주·전남 35만 시·도민의 바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근혜 조카부부 회사, 저축銀 위법 인수”

송호창 의원 주장...금감원 “인수승인 문제없었다”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조카부부가 대주주로 있는 대우신소재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위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10년 박 후보의 조카 부부가 운영하는 대우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만든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송 의원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당시 대우신소재 등의 자금출처를 점검해보니 매출채권 회수, 내부 유보금, 국제 환급금 등으로 조달한 전액 자기자금으로 확인됐다”며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자기 자금으로 인수해야 하는데, 대우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만든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송 의원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당시 대우신소재 등의 자금출처를 점검해보니 매출채권 회수, 내부 유보금, 국제 환급금 등으로 조달한 전액 자기자금으로 확인됐다”며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이석기·김재연 제명안 부결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통합진보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부정선거 과문의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13명의 재직의원 가운데 6명만 찬성에 결국 부결됐다.

두 의원은 이미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제명당했으나, 정당법에 따라 최종 제명처리가 되려면 소속 재직 의원의 과반인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사퇴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사퇴서를 통해 “저는 오늘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한다. 저를 둘러싼 근거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늘의 여성엑스포

박람회 기간 공연을 선보일 팀을 뽑는 ‘유스퍼포먼스 페스티벌’ 경연을 통과한 ‘세계관매미1위’가 신나는 음악을 선사한다. ‘서울재즈아카데미’에서 만나 결성된 이 팀은 수준높은 연주와 노래를 들려줄 것이다.

- △유스밴드-세계관매미1위 (해양광장·오후 2시30분)
- △국가의 날-인도 (엑스포홀·오전 10시)
- △샌드매지컬 (천막극장·낮12시)
- △해상소(해양무대·오후 2시)
- △파페스티벌-박완규 (특설무대·오후 8시)
- △빅오션 (해상무대·밤 8시50분)

- △어제의 관객액 수 = 10만3881명 (26일 오후 6시 현재)
- △누적관객액 수 = 49만41604명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 구분 | 광주여자대학교(15기) | 광주교육대학교(6기) |
|------------|---|---|
|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2. 9.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2. 9. 8(토) 09:10 (중급반) | ·월·목 아간반: 2012. 9. 3(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2. 9.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 (특급반) |
| 모집기간 | 2012. 7. 26(목)~9. 8(토) | 2012. 7. 26(목)~9. 8(토) |
| 수업기간 | 2012. 9. 7(금)~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 2012. 9. 6(목)~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
|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14:10~18:00 ·아간반 19:00~21:00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14:10~18:00 ·아간반 19:00~21:00 |
| 수강료 |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
| 수료후 특전 | ·1,2년계연수과정 이수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법남독)기회 부여 | ·1,2년계연수과정 이수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법남독)기회 부여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1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 ·문 의: 0621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lly.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 리모델링전 | | 리모델링후 | |
|------------|---------------------|------------|--------------------|
| 부채현황 | 70,000,000원 | 부채현황 | 100,000,000원 |
| 농협중앙회 | 4,600,000원 | 농협중앙회 | 6,750,000원 |
| 씨티은행 | 15,000,000원 | 씨티은행 | 40,000,000원 |
| 지역농협 | 10,000,000원 | 국민은행 | 50,000,000원 |
| 삼성카드론 | 9,000,000원 | 씨티은행 | 4,500,000원 |
| 더블유저축 | 8,000,000원 | 총부채 | 190,050,000원 |
| SC저축은행 | 37,500,000원 | 1년이자비용 | 14,450,000원 |
| 솔로몬저축 | 15,000,000원 | 총부채 | 36,035,000원 |
| 대부업체 | 20,000,000원 | 1년이자비용 | 7,800,000원 |
| 총부채 | 180,450,000원 | 총부채 | 14,450,000원 |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동 215. 302호

요양보호사란?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광주광역시 지정 교육기관 : 광주-2008-제001호 ▶

2012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성실과 사명으로 노인을 섬기고자 하는 모두(면접후 학습능력 가능한 자)

자격증반

- 교육일정: 2012년 8월 초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18:00-22:50
- 교육비: 150,000원
- 모집인원: 40명(* 교육비 등록금으로 선착순 마감)
 - 사회복지사: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간호사: 3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만 해당)
 - 자격증사본 1부(자격자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진 2매

교육 후 국가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2-2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 지원자격: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 수업형태: 2년(4학기) / 주 3일 / 아간제
 :: 교육일시: 2012년 9월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 수강료: ① 등록금: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50,000원
 ::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5,000원
 :: 혜택: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 (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리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 인격을 연마 하는데 목적이 있음.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 소로 36

문의전화 062) 605-1112, 1063 / F. 062) 572-0264